**회의록**

|  |  |  |  |  |  |
| --- | --- | --- | --- | --- | --- |
| 회의일시 | 2022.10.11.화 | 조 | tWEnty Six | 작성자 |  |
| 참석자 | 어플 팀 - 김세진, 최세훤  디자인 팀 - 노근호, 윤지원  디바이스 팀 - 조현우, 하찬현 | | | | |

|  |  |
| --- | --- |
| 회의안건 | 1.  2.  3. |

|  |  |
| --- | --- |
| 회의내용 | 요약 |
|  |
| **구체적 회의** |
|  |

|  |  |
| --- | --- |
| 결정사항 | 내용 |
|  |
|  |
|  |
|  |

|  |  |
| --- | --- |
| 진행 사항  및  추후 계획 |  |

회의 중 대화 내용

최세훤: 디자인 팀이 제품 디자인이나, 회로도까지 완성하여 기존의 디자인 업무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한 명씩 디바이스팀, 프로그래밍 팀으로 옮기거나 두 명이 모두 다른 부서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가?

윤지원 : 좋다. 혹은, 어플리케이션 UI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를 지금 완료하고, 후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어떤가?

하찬현 : 현재 예산이 입금되지 않아 부품 조립 및 디바이스 개발이 어렵다.

김세진 : (UI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UI 디자인은 후에 디자인팀에서 담당할 업무이니 지금 진행해도 괜찮을 듯 하다. 지난번 공유했던 자료는 UI 디자인인가?

윤지원, 노근호 : 토대가 되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추가적인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

최세훤 : 각 부품이 배송이 되어야 세부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10월 20일~10월 26일까지 시험기간 이므로 그 전주(10월 11일~)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시험에 집중을 하자.

프로그래밍 팀은 시험이 많지 않으니 10월 26일까지 아두이노 코딩을 완료하겠다.

이후 10월 27일 부터 디바이스 팀은 부품 조립, 디자인 팀은 UI 디자인, 프로그래밍 팀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자. 11월 24일까지는 모든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이후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

윤지원 : 당장 부품이 없다면 코딩 시뮬레이션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김세진 : 찾아보겠다.

조현우: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김세진 : 지원금 사용 계획서 양식과 실험보고서를 알아보고 다음 캡스톤 시간(10월 6일)에 작성 해보자.

하찬현 : 예산금이 60인가?

김세진 : 그렇다. 관련된 서류와 양식을 공유하겠다.

최세훤 : 위 파일(디딤돌 예산 관련 ppt) 11쪽을 보면, 우리는 도서구입비나 여비 등은 없다. 지출 내역은 아마 회의비, 재료비 등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다.

김세진 : 의문 사항은 미리 디딤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지금 ppt를 읽어보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말해달라.

최세훤 : 브레드보드를 여러 개(크기 별로) 사서 실험할 수 있는지, LED와 저항 등 세부 부품을 여러 개 구매 가능한지 궁금하다. 지금 총 재료비가 어느 정도인가?

조현우 : 기기가 5만원 전후기 때문에 2개 1세트면 15만원 안 넘을 것 같다.

하찬현 : sd카드나 기타 부품을 넣으면 +a긴 한데 그래도 최댓값은 20만원일 것이다.

조현우 : sd카드를 포함해서 15만원이었다.

김세진 : 디바이스를 2대 만드는 것은 예산과 시간이 2배로 걸리는 작업이다. 1대만 만들어도 기기 구현에 문제가 없다면 1대만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

최세훤 : 기기 작동 과정에서 문이 열렸을 때 다른 기기가 음성 출력을 하지 않는지, 동시에 2대의 기기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는 기존 계획 그대로 2대 제작하는 것이 맞다.

윤지원 - UI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링크들을 카톡(깃허브)로 보내두겠다.

노근호 - 필요한 게 무엇인지?

윤지원 - 간단한 어플(다운받는 곳에서 보이는 것) 소개와, 로딩화면, 안의 시스템 ui정도? 혹시 스토어 디자인이나, 어플 설명에 대한 디자인이 따로 필요한가?

김세진 – 어플리케이션이 잘 작동되는지 알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디자인 검토는 후에 필요하다면 하면 된다.

윤지원 - 그렇다면 필요한 건 투명배경에 버튼 디자인 정도로 파일을 여러개로 쪼개는 것?

노근호 - ui디자인에 대해 간단한 것만 알면 될 것 같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 등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윤지원 - 좋다.

최세훤 : 혹시 저항을 왜 사용하는지 아시는가?

하찬현 : 잘 모르겠다.

최세훤 : 각각의 모듈과 센서들이 견딜 수 있는 정격전압이 다르다. 아두이노용 모듈과 센서는 5V인 경우가 많은데, LED 등 추가로 필요한 부품들은 5V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저항을 넣어 전압을 낮출 필요가 있다.

우노에 3.3V와 5V 출력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맞춰 입력 전압을 선택해도 좋지만 회로도에서 5V만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저항이 필요한지, 어떤 저항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부품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현우, 하찬현 : 좋다.

최세훤 : 아두이노와 전기 회로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부품 올 때까지 공부하면 좋을 듯 하다.